네이버, 'AI 검색' 시장 질주 vs 다음, 'AI 포털'로 추격전

검색시장 주도권 경쟁

네이버, 검색창서 'AI 탭' 바로 연결
내달 AI 브리핑 영역에 광고 도입

다음, 'AI 오버뷰·AI 모드' 확대
업스테이지와 차세대 포털 구축

기존 검색 엔진 역할은 지속 전망

네이버와 다음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앞세워 검색 시장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AI가 만든 이미지

국내 양대 포털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앞세워 검색 시장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네이버는 AI 검색을 중심으로 검색 생태계를 고도화하며 수익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업스테이지에 인수된 다음도 AI 기반 포털 전환을 선언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6일 대화형 검색 서비스 'AI 탭'을 정식 출시했다. 지난 4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AI 탭은 이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하면 검색과 쇼핑, 플레이스, 블로그, 카페, 클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 분석해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대화형 검색창 안에서 추천 장소를 예약하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등 검색 이후 행동까지 한 번에 이어갈 수 있다.

기존에는 검색어를 입력한 뒤 별도의 AI 탭을 선택해야 했지만 정식 서비스에서는 PC와 모바일 검색창에서 바로 AI 검색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베타 서비스 기간 일주일 내 재방문율은 36%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 AI 검색 고도화·수익화 속도 내는 네이버

AI 서비스 확대는 검색 점유율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네이버 검색 점유율은 AI 탭 베타 출시 이전인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평균 63.82%였지만, 출시 이후인 4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66.34%로 2.5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일일 검색 점유율이 80%를 넘어서기도 했다.

네이버는 다음 달 21일부터 AI 브리핑 영역에 광고를 도입하며 AI 검색 수익화에도 나선다. AI 브리핑 적용 범위도 올해 안에 전체 검색의 약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사람이 작성한 콘텐츠를 구분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확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 업스테이지 품은 다음, AI 포털로 재도약

다음도 AI를 앞세워 반전을 노리고 있다.

다음은 모바일 중심 시장 재편과 네이버·구글 중심의 검색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검색 점유율이 5% 수준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 5월 업스테이지가 다음을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AI 기반 포털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은 다음 달부터 검색 결과를 종합 분석·요약하는 'AI 오버뷰'를 전면 확대하고,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AI 모드'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업스테이지의 거대언어모델(LLM)과 다음의 트래픽을 결합해 AI 에이전트 기반 차세대 포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내부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플랫폼 정보까지 폭넓게 활용하는 개방형 전략도 차별화 요소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확산에도 기존 검색 엔진의 역할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가 정보 탐색과 요약을 담당하고 검색 엔진이 출처 확인과 사실 검증을 맡는 '하이브리드형 검색'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경외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교수는 "정보 탐색 과정에서 검색 엔진과 생성형 AI를 함께 활용하는 이용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AI는 정보 발견과 요약 단계에서 강점이 있지만 검색 엔진은 사실 검증과 실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LG CNS, 브랜드·기술 결합 참여형 전시

내달 1일~20일 서울 DDP서 운영
공연·미디어 콘텐츠·토크·체험
'브랜드 경험 프로젝트' 기반 전시

LG CNS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AGV로봇의 런웨이 퍼포먼스를 관람하고 있다. /LG CNS

LG CNS가 브랜드 정체성과 자체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대중들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고객 참여형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 주제는 '기술이 사람을 만날 때: 연결은 마음을 향한다'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예술 콘텐츠로 풀어내 관람객들이 기술과 브랜드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프로그램은 ▲공연 ▲미디어 콘텐츠 ▲토크 ▲체험 등 4가지다. 일상 속 편리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AI와 로봇 등 미래 핵심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볼 수 있다.

전시 기반은 '브랜드 경험(BX) 프로젝트'다. 이는 지난해 4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4관왕을 수상한 회사 고유의 플랫폼이다. 'BX 웹'에서는 브랜드 철학과 기업 정체성 등을 디자인을 통해 통합해 보여주고, '타이포그래피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글씨체와 캐릭터를 다양한 색상과 소재를 통해 생성할 수 있다.

공연 프로그램에서는 로봇과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미래 기술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무인운반로봇(AGV)와 BX 캐릭터 '씨에너스'가 런웨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의상을 입은 씨에너스가 AGV를 타고 이동하는 방식이다.

홀로그램 드라마는 가족, 친구와 함께 하는 일상에 디지털 기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미디어 콘텐츠는 핵심 모티프인 '커넥팅 스피어'를 활용해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각도에 따라 점, 구, 하트 등으로 각각 다르게 보이도록 연출해 기술이 사람과 사회를 다양한 형태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교통, 금융, 물류, 커머스 등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을 전시장 곳곳에 설치된 미디어 디바이스를 통해 소개한다.

토크 프로그램에는 문화·예술·과학·인문 분야 창작자 및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주제는 기술 발전이 창작과 감각,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AI 시대 사회 변화와 인간의 역할 등이다. 이 밖에 회사 고유 BX '씨에너스'와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해 나만의 키링, 머그컵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조민선 기자 msjo@

엔씨, 요금인하 등 전국 PC방과 상생 강화

리워드 강화, 자동 충전기능 도입

엔씨가 전국 가맹 PC방 업주들의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생 정책을 확대한다. 이용 요금 인하와 리워드 강화, 자동 충전 기능 도입 등을 통해 PC방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엔씨가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부터 가맹 PC방을 대상으로 '리워드 실시간 지급 체계'를 도입했다.

엔씨 가맹 PC방은 업주가 G코인을 미리 충전한 뒤 이용자가 PC방 혜택을 받으며 게임을 이용한 시간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도 충전 금액에 따라 보너스 G코인을 지급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추가 적립률을 확대해 업주 혜택을 강화했다.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대표 게임인 '리니지'의 평균 서비스 이용 금액도 약 13% 인하했다. 이를 통해 PC방의 고정 운영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결제 편의성도 개선했다. G코인 충전 금액을 1만 원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잔고가 설정 금액의 2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충전되는 기능도 추가했다. 업주가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상생 정책의 핵심인 'NC 파트너 PC방'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선택형 가맹 프로그램으로, 신작 게임 설치와 매장 홍보, 운영 지원 등에 협력하는 PC방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가맹점에는 G코인 추가 적립 등 현금성 혜택과 함께 이벤트 참여 기회, 매장 홍보 지원 등이 제공된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가맹 PC방 5235곳 가운데 1656곳이 가입해 약 32%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엔씨는 시범 운영 기간 가입한 매장에도 보너스 G코인을 소급 지급했다.

/최빛나 기자

KT, 공공기관에 '5G 업무망 거점형' 선봬

경기도청 데이터센터에 최초 적용
GMG 구축, 7개 지자체와 연계

KT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G 업무망 거점형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5G 업무망은 기존 유선 기반의 업무 인프라를 5G 무선 네트워크로 대체한 기업·공공기관용 통신 솔루션이다.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을 통해 시간·장소 제약없이 유연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도 기업·기관 사내망 보안 정책을 적용해 편의성·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번 '5G 업무망 거점형'의 핵심은 네트워크 인프라 효율성 강화다. 네트워크 보안 승인이 필요한 정부·지자체 등에서 이를 광역 단위 거점에 통합·구축하고 산하 지자체 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중복 구축해왔다.

개발은KT미래네트워크랩에서 주도했다. 단말부터 중앙 네트워크까지 트래픽을 구간별로 분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각 기관은 공통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세부 기관 별로 네트워크를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신규 업무망을 추가할 때도 대규모 장비 구축이 필요 없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청 데이터센터에 최초로 적용했다. 5G 업무망 핵심 장비인 GMG를 구축하고 수원·파주·의정부 등 경기도 산하 7개 지자체와 연계 업무망을 개통했다.

경기도청 공무원이 5G 업무망 거점형을 활용해 외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KT

향후 상위 기관과 협력해 백오피스를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상위 기관과 산하 기관 간 권한을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고객사의 운영 독립성과 인프라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선 기자

스마일게이트, 모닥 기술인재 해커톤 열어

해커톤 'MODAC-THON 2026'

스마일게이트는 기술인재 커뮤니티 모닥(MODAC)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해커톤 'MODAC-THON 2026'을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스마일게이트 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해커톤은 '일하는 우리의 삶을 더 [···] 하게 만드는 작은 실험'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해 개발자의 일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에는 개발캠프, UNSEEN, 스마일게이트멤버십(SGM), 서강대학교 DHE 트랙 등 스마일게이트 기술인재 육성 프로그램 수료자로 구성된 모닥 회원 3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무박 2일 동안 팀을 꾸려 직장인의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구현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현업 조직이 직접 해결 과제를 제안하고 심사에 참여했다.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개발조직은 게임 플레이 및 QA 효율화, 시장 트렌드와 이용자 반응을 반영한 콘텐츠 인사이트 발굴 등 실제 업무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유 주제 트랙도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개발과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및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우승은 AI 응답 대기 시간을 팟캐스트 형태의 학습 콘텐츠로 전환해 기다림을 학습 경험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부기온앤온' 팀이 차지했다. /최빛나 기자